

#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Childhood Experience,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Relationship to Parenting Behaviors

전 현 진\*

Jeon, Hyun Jin

박 성 연\*\*

Park, Seong Yeon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hildhood experience,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to parenting behaviors. Subjects were 288 fathers and 331 mothers of 4th and 5th grade children. Data consisted responses to questionnaires. For both mothers and fathers, overall parenting behavior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ir childhood experience,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Childhood experience influenced parenting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marital satisfaction and personality. Father's childhood experience influenced parenting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marital satisfaction and personality. Father's personality was the most predictable variable for fathers' parenting.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predicting mothers' parenting.

## I. 서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많은 환경 중에서도 부모는 양육행동을 통해 가장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과거로부터 부모의 양육행동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양육행동

에 관한 초기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일방적인 영향에 관심을 두고,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몇몇 심리적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왔다. 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러나 점점 부모-자녀 사이의 양방향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최근에는 아동발달연구에서 생태학적 관점과 전생애적 관점이 강조되면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Luster & Okagaki, 1993). 따라서 어렸을 때의 경험을 비롯하여 현재의 가족관계 등,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의 발달적인 누적효과나 매개 또는 중재 효과에 학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육행동의 결정요인으로 과정모형을 주장한 Belsky(1984)에 의하면, 양육행동은 부모의 발달사, 인성과 같은 부모특성과 결혼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및 직업경험 등의 부모-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맥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된다. 특히, 아동기의 경험이 현재의 인간관계, 심리적 특성, 그리고 행동방식을 결정짓는 원천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애착발달에 관한 연구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연구에서도 시사되고 있다. 즉, 어릴 때 아동이 경험한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인간관계에 대한 내적작업모형을 형성하여, 성장한 후의 이성발달(Bowlby, 1973)이나 부부관계(Cohn, Silver, Cowan, Cowan, & Person, 1992; 유은희, 1991), 부모자녀관계(Sroufe, Jacobvitz, Mangelsdorf, DeAngelo, & Ward, 1985; Benoit & Parker, 1994)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Belsky의 가족과정모형을 이론적 틀로 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래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여 각 변인들간의 관계 및 복합적인 영향력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생애 초기에 경험한 양육이나 가족관계는 인성의 기초가 되

고 나아가, 그 개인이 새로 구성된 가족에서 부모로서의 행동이나 배우자로서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인간발달에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동기 경험과 이성특성간의 관계는 어릴적의 직접적인 양육행동이나 가정분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성인기 이성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증이 있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에 비해 아동기 때 자기 부모로부터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부모의 애정이나 참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elsky & Vondra, 1993). 또한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성인들은 자기 부모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으며 어렸을 때 자신을 따뜻하게 돌봐주지 않은 것으로 회상하고 있었다 ((Belsky & Pensky, 1990). 한편, Amato와 Booth(1994)에 의하면 자기 부모의 결혼이 불행했었다고 회상한 성인들은 부모의 결혼이 행복했었다고 회상한 성인들보다 높은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기 때 폭력적인 부모의 부부관계에 노출되었던 대학생들은 높은 심리적 긴장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Amato, 1991). 또한 Lobdell과 Perlman(1986)은 어머니가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딸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반면, 자기 부모의 결혼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대생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어렸을 때의 부모-자녀 관계 뿐 아니라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 또한 성인의 이성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기 경험과 자기 부모의 결혼관계는 직접적으로나 인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배우자 학대 가정이나 일반가정에 관한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즉, Pagelow(1981)

등에 의하면, 아동기에 폭력적인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배우자를 학대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Terman(1938)는 배우자에게 만족하는 정도는 그들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Belsky & Pensky, 1990 재인용), 여러 연구에서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았다고 회상한 배우자들은 자신의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Goodrich, Ryder, & Rausch, 1968; Snyder, 1979). 이렇게 부모의 낮은 결혼의 질이 성인자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들의 부부갈등으로 인해 아동기의 자녀에게 부모로서 해야 할 따뜻하고 지지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대인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Amato & Booth, 1994).

이렇게 아동기의 양육경험이나 가정 분위기에 의해 형성된 인성특성은 현재의 부부관계의 질은 물론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성특성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인성특성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에게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부정적인 인성특성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Grossman, Pollack, & Golding, 1988; Bettes, 1988). 특히 부정적인 정서는 양육행동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Meyer, 1990; Belsky & Vondra, 1993). 또한 많은 연구에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신경증적인 개인은 불만족한 결혼생활을 경험하였고, 이와 반대로 외향성이 높은 개인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ysenck, 1980; Frank, Hoke, Jacobson, Justkowski, & Huyck, 1986).

부부관계의 질과 양육행동간의 관계에서는 배

우자가 주요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부부관계가 불만족스러우면 자녀양육에도 소홀하게 된다(Belsky & Isabella, 1985; Easterbrooks & Emde, 1990).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불만스러운 부부관계의 보상으로 여겨서 자녀에게 민감하고 적극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기도 한다(Belsky, 1981; Engfer, 1990).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동기 경험과 인성, 그리고 결혼만족도는 모두 각각 양육행동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세 요인들을 모두 함께 고려해 본다면 각 요인들끼리 상호 역동적인 관계를 맺는 동시에 양육행동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행동에 대한 이들 각각의 요인들의 영향력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모두 동시에 고려되어서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힌 연구(Meyer, 1990; Belsky & Isabella, 1985)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인성, 그리고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자녀관계에서 부와 모의 역할은 양쪽 모두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양육만을 중요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핵가족과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 부부 역할 공유(role sharing)의 차원으로 자녀 양육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인성,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더욱이 한가정의 아버지와 어

머니는 서로 다른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고, 접하는 환경도 차이가 있으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의 영향력도 서로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을 대상으로 부모 자신의 아동기 경험과 인성특성 및 결혼만족도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

는가를 살펴보고, 변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 또는 직접적 영향을 파악하며 이러한 경로가 부모의 성에 따라 다른지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에 따라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은 부모의 성에 따라 다른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를 비교적 적게 받고 세대간 전이가 충분히 일어났으리라 기대되는 성인 중기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서울시 내 초등학교 4·5학년 아동의 아버지 288명과 어머니 331명을 조사하였다. 이들 중 한 아동의 부모가 모두 참여한 가족은 279쌍이었다. 연구대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각각 40세와 37세였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졸업이상은 28.5%이었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고졸은 61.5%, 대졸자는 11.8%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과 서비스직이 47.1%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기술직은 41.8%, 관리직/전문직은 5.6%, 단순노무직 4.7%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어머니는 72.9%가 전업주부였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에 70%이상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각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기 경험, 인성특성,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되어있다.

#### 1) 부모의 아동기 경험

부모의 아동기 때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 및 아버지와의 관계와 부모의 결혼관계에 관한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Epstein (1983)의 부모-또래-척도(Mother-Father-Peer Scale : MFPS)를 수정하여 부모가 아동기 때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바를 보고하도록 하였고, 자신이 지각하는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은희(1991)의 부모의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부모-또래 척도(MFPS)는 총 70문항의 4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경험만을 측정하고자 부모이상화 차원과 또래상호작용 차원은 제외하고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9문항),

수용 대 거부 차원(9문항)만을 발췌하여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와의 경험에 대해 각각 같은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본 척도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낮추거나 각 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못한 문항은 제거되고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1~5점으로 된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아동기 경험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부모에 의해 과잉보호되지 않고 독립심이 더 많이 조장되었으며, 부모로부터 거부되지 않고 더 많이 수용되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Cronbach's  $\alpha$ 로 본 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의 경우 .72~.83의 범위이고, 어머니는 .68~.80의 범위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한편, 부모 자신이 지각하는 자신의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평가하는 유은희(1991)의 척도는 총 4문항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  $\alpha=.86$ ,  $\alpha=.81$ 였다.

## 2) 부모의 인성특성

부모의 인성 측정 도구로는 Eysenck와 Eysenck(1975)가 제작한 EPQ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을 사용하였다. EPQ는 Eysenck와 이현수(1985)가 한국인에게 맞게 표준화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EPQ는 원래 강인성, 혹은 정신병적 경향성 (Psychoticism, P), 외향성-내향성 (Extraversion-Introversion, E), 불안정한 정서성 혹은 신경증성 경향성(Neuroticism, N), 그리고 허위성, 혹은 사회적 욕망성(Lie, L)의 4가지의 성격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용과 아동용이 있다. 이 4가지 하위차원 중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Belsky & Vondra, 1993; Rowe, 1991)를 통해 부모의 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

외향성 14문항과 불안정한 정서성 차원의 17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EPQ 원본은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끔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자는 문항을 수정하여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적이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인성을 가졌고,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내향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해석한다. 인성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의 경우, 외향성은  $\alpha=.88$ , 불안정한 정서성은  $\alpha=.90$ 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엔 외향성은  $\alpha=.85$ 이고 불안정한 정서성은  $\alpha=.89$ 이었다.

## 3) 결혼만족도

연구대상자 본인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Roach, Frazier와 Bowden(1981)이 개발한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번안하여 간략형으로 수정한 유은희(1991)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7문항의 5점 Likert 평정척도로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는  $\alpha=.95$  이고, 어머니 역시  $\alpha=.95$  로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 4)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은 Schaefer(1965)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수정·개발한 이숙(1988)의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온정 요인'과 '거부·권위주의 요인'에 근거하여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본래 이 척도는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행동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자신의 양육행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보고식의 5점 Likert척도로 수정하였으며, 문항수를 줄이기 위해 각 하위요인에서 대표성을 띤다고 생각되는 14문항씩만을 선택하여 총 2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의 경우, 온정적 양육행동은  $\alpha=.85$ 이고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alpha=.87$ 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엔 온정적 양육행동은  $\alpha=.84$ ,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alpha=.88$ 로 나타났다.

### 3. 조사절차

본 연구는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 위치한 1개 초등학교 4학년 한 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 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낮추거나 표현이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의 2개 초등학교에서 4학년 6학급과 5학년 6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여 실시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쌍으로 총 512부를 배포하

여 384부가 회수되었는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와 편부모가정, 아버지가 직업상 떨어져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친과 동거하는 가정의 아버지 288명, 어머니 331명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 4. 자료분석

모든 분석은 아버지 집단과 어머니 집단을 따로 분석하였는데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해서는 독립변인들의 점수분포를 중심으로 3집단으로 나누어 일원변량(one-way ANOVA) 분석을 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서는 단계별 중다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도는  $p<.05$  이하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에 따른 양육행동

아동기 경험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표 2>서 보듯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부모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과 수용 대 거부 차원, 그리고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 등, 아동기 경험 모든 하위변인에서 집단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독립성이 조장되고,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했으며, 자기 부모의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도 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반면, 거부·권

위주의적 양육행동을 적게 나타냈다.

한편, 부모의 인성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외향성과 불안정한 정서성 수준에 따라 온정적 양육행동과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1>과 <표 2> 참조).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외향성이 높으면 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고( $F=16.56$ ,  $df=2$ ,  $p<.001$ ;  $F=6.95$ ,  $df=2$ ,  $p<.01$ ),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낮게 보이고 있다( $F=9.22$ ,  $df=2$ ,  $p<.001$ ;  $F=6.09$ ,  $df=2$ ,  $p<.01$ ).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안정한 정서성에 따라서도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온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취하고( $F=9.32$ ,  $df=2$ ,  $p<.001$ ;  $F=3.71$ ,  $df=2$ ,

<표 1>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인성, 결혼만족도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온정적 양육행동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		
			M(SD)	F	Duncan Grouping	M(SD)	F	Duncan Grouping
아 동 기 경 험	부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상	3.83(0.47)	7.34***	A	1.70(0.50)	13.16***	B
		중	3.67(0.39)		B	1.97(0.41)		A
		하	3.56(0.52)		B	2.07(0.52)		A
	부의 수용 대 거부	상	3.80(0.46)	4.88**	A	1.78(0.47)	6.35**	B
		중	3.68(0.46)		AB	1.93(0.49)		A
		하	3.58(0.49)		B	2.04(0.51)		A
	모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상	3.87(0.43)	10.58***	A	1.69(0.49)	15.36***	C
		중	3.66(0.41)		B	1.94(0.44)		B
		하	3.55(0.54)		B	2.09(0.53)		A
	모의 수용 대 거부	상	3.82(0.43)	6.77**	A	1.74(0.47)	11.86***	C
		중	3.69(0.43)		AB	1.90(0.44)		B
		하	3.57(0.54)		B	2.09(0.52)		A
부모의 결혼만족도	상	3.80(0.47)	3.64*	A	1.76(0.45)	5.08**	B	
	중	3.65(0.48)		B	1.97(0.48)		A	
	하	3.60(0.48)		B	1.99(0.56)		A	
인 성	외향성	상	3.87(0.44)	16.56***	A	1.79(0.48)	9.22***	B
		중	3.70(0.42)		B	1.87(0.46)		B
		하	3.49(0.51)		C	2.08(0.51)		A
	불안정한 정서성	상	3.54(0.51)	9.32***	B	2.17(0.50)	29.75***	A
		중	3.67(0.47)		B	1.93(0.46)		B
		하	3.83(0.41)		A	1.66(0.40)		C
결혼만족도	상	3.92(0.46)	23.87***	A	1.68(0.49)	22.23***	B	
	중	3.64(0.42)		B	1.98(0.40)		A	
	하	3.49(0.46)		C	2.11(0.52)		A	

\* <.05 \*\* <.01 \*\*\* <.001

p<.05),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이 취하고 있다(F=29.75, df=2, p<.001; F=27.12, df=2, p<.001).

한편, 결혼만족도에 따른 양육행동의 일원분산분석 결과(<표 1>, <표 2>참조)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결혼만족도 수준에 따라 양육행

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온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반면에,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온정적 양육행동은 낮고,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높아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있다.

〈표 2〉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인성, 결혼만족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온정적 양육행동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		
			M(SD)	F	Duncan Grouping	M(SD)	F	Duncan Grouping	
아 동 기 경 험	부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상	3.87(0.45)	6.02**	A	1.90(0.54)	4.48*	B	
		중	3.71(0.45)		B	2.04(0.50)		BA	
		하	3.66(0.51)		B	2.12(0.58)		A	
	부의 수용 대 거부	상	3.91(0.44)	12.20***	A	1.80(0.50)	16.18***	C	
		중	3.75(0.46)		B	2.03(0.53)		B	
		하	3.60(0.49)		C	2.21(0.54)		A	
	모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상	3.86(0.43)	8.31***	A	1.92(0.50)	6.19**	B	
		중	3.79(0.44)		A	1.94(0.50)		B	
		하	3.60(0.52)		B	2.15(0.57)		A	
	모의 수용 대 거부	상	3.88(0.47)	10.15***	A	1.81(0.50)	14.50***	B	
		중	3.74(0.49)		B	2.08(0.49)		A	
		하	3.59(0.43)		C	2.18(0.56)		A	
	부모의 결혼만족도	상	3.89(0.47)	8.67***	A	1.85(0.50)	14.75***	B	
		중	3.73(0.40)		B	1.97(0.50)		B	
		하	3.62(0.53)		B	2.23(0.57)		A	
	인 성	외향성	상	3.88(0.50)	6.95**	A	1.88(0.62)	6.09**	B
			중	3.75(0.45)		B	2.02(0.47)		A
			하	3.64(0.46)		B	2.13(0.52)		A
불안정한 정서성		상	3.66(0.51)	3.71*	B	2.28(0.59)	27.12***	A	
		중	3.75(0.44)		BA	2.03(0.50)		B	
		하	3.83(0.46)		A	1.77(0.43)		C	
결혼만족도	상	106(3.97)	19.41***	A	106(1.80)	14.93***	B		
	중	108(3.65)		B	106(2.10)		A		
	하	111(3.62)		B	110(2.17)		A		

\* < .05 \*\* < .01 \*\*\*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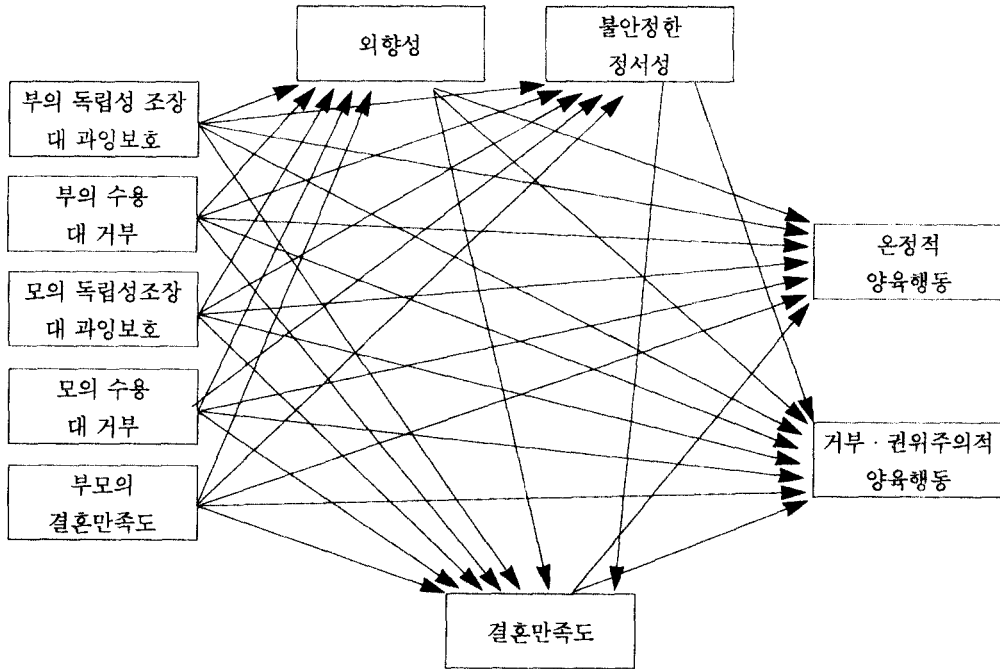
## 2. 부모의 아동기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림 1>의 개념적 인과모형(Path Model)에서 나타난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 사이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직접적인 영

향력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각 변인들 사이의 경로계수(Path Coefficient)를 산출하고, 유의한 경로계수만으로 수정된 인과모형(<그림 2>, <그림 3> 참조)과 상관도 분할표(<표 4>)를 작성하였다.

(1)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와 아버지 양육행동과의 인과적 관계 : <표 3>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온정적 양





〈그림 1〉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 간의 개념적 인과모형

육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은 외향성( $\beta=.35$ ), 아버지 자신의 결혼만족도( $\beta=.25$ ), 아동기때 자기 어머니로부터 수용된 경험( $\beta=.19$ )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서는 불안정한 정서성( $\beta=.45$ )이 가장 설명력 큰 변인이었고 아동기때 자기 어머니로부터 거부되었던 경험( $\beta=-.27$ ), 외향성( $\beta=-.17$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었다.

이상의 중다회귀분석을 기초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유의한 경로계수( $\beta$ )만을 선택하여 양육행동에 대한 인과모형을 <그림 2>에 재구성하였으며, 양육행동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직·간접적 영향력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중 자기 어머니로부터 수용된 경험과 외향성,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온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는 아동기 경험

중 어머니로부터 거부된 경험과 외향성 및 불안정한 정서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는 달리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각 독립변인들은 간접적으로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동기 경험 중 어머니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은 외향성을 매개로 해서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향성과 불안정한 정서성을 매개로 하여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온정적 양육행동에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는 불안정한 정서성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향성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결혼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 3〉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Stepwise)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 <sup>2</sup>	$\beta$	F
아버지	외향성	모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37	.14	.37	41.33***
	불안정한 정서성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	.34	.11	-.34	33.36***
		모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42	.17	-.25	27.19***
	결혼만족도	불안정한 정서성	.44	.19	-.44	62.18***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	.47	.22	.18	36.90***
		외향성	.49	.24	.15	27.64***
	온정적 양육행동	외향성	.35	.12	.35	36.81***
		결혼만족도	.43	.18	.25	28.51***
		모의 수용 대 거부	.46	.22	.19	23.45***
	거부·권위 주의적 양육행동	불안정한 정서성	.45	.20	.45	64.81***
모의 수용 대 거부		.52	.27	-.27	47.42***	
외향성		.54	.30	-.17	35.53***	
어머니	외향성	부의 수용 대 거부	.24	.06	.24	19.35***
	불안정한 정서성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	.29	.08	-.29	26.78***
		모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32	.10	-.15	17.17***
	결혼만족도	불안정한 정서성	.50	.25	-.50	96.51***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	.52	.27	.15	53.44***
	온정적 양육행동	결혼만족도	.30	.09	.30	29.61***
		모의 수용 대 거부	.38	.14	.23	24.06***
		외향성	.40	.16	.14	18.64***
거부·권위 주의적 양육행동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	.41	.17	.12	15.10***	
	불안정한 정서성	.44	.19	.44	68.74***	
	부의 수용 대 거부	.49	.24	-.23	46.70***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51	.26	-.14	33.66***	

\*\*\* &lt; .001

도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며, 특히 불안정한 정서성은 온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변인들은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22%를 설명하고 있으며, 거부·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3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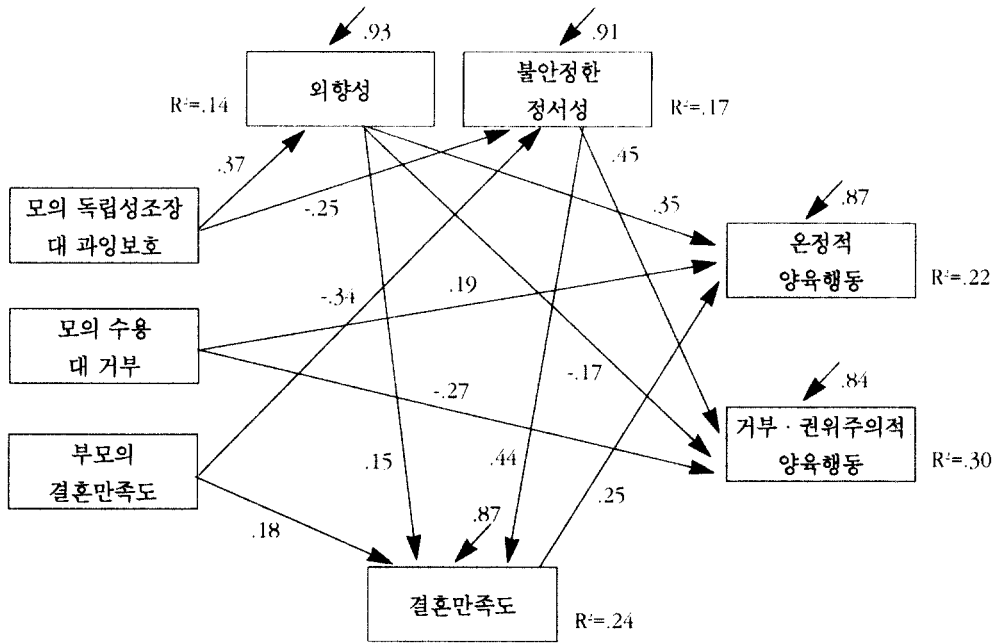
(2)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인과적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력은 <표

3>에 나타나듯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는 결혼만족도( $\beta=.30$ )와 아동기 때 어머니로부터 수용된 경험( $\beta=.23$ ), 외향성( $\beta=.14$ ), 그리고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 $\beta=.12$ )의 순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한편, 어머니의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불안정한 정서성( $\beta=.44$ )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아동기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거부되었던 경험( $\beta=-.23$ ), 그리고 본인의 결혼만족도( $\beta=-.14$ )의 순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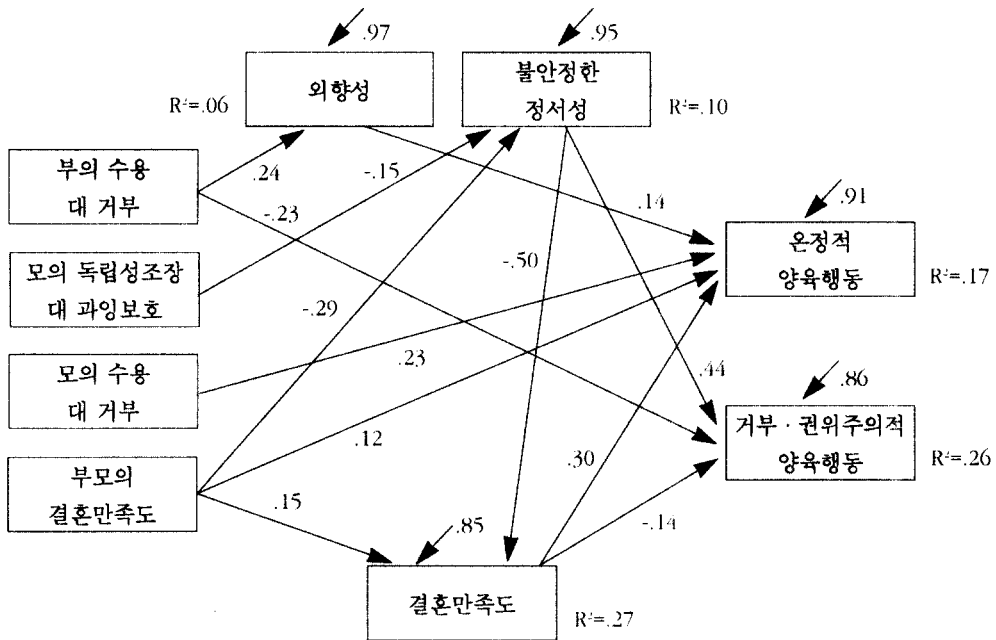
(표 4)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 경험, 인성, 결혼만족도의 상관도 분할

종속변인	독립변인	아버지			어머니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외향성	부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08	-	.08	.03	-	-
	부의 수용 대 거부	.02	-	.02	.23***	-	.23
	모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37***	-	.37	.05	-	-
	모의 수용 대 거부	-.03	-	-.03	.00	-	-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	-.02	-	-.02	-.01	.02	.01
불안정한 정서성	부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10***	-	-.10	-.01	-	-.01
	부의 수용 대 거부	0.2	-	0.2	-.03	-	-.03
	모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25***	-	-.25	-.12***	-	-.12
	모의 수용 대 거부	.01	-	0.1	-.02	-	-.02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	-.34***	-	-.34	-.16***	-.08	-.24
결혼 만족도	부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28	-	-.28	.03	-	.03
	부의 수용 대 거부	-.17	-	-.17	.06	-	.06
	모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06	.75	.81	-.01	-	-.01
	모의 수용 대 거부	.01	-	.01	.05	-.06	.05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	.18***	.15	.33	.15***	.08	.23
	불안정한 정서성	-.41***	-	-.41	-.50***	-	-.50
	외향성	.15***	-	.15	.05	-	.05
은정적 양육행동	부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08	-	.08	.07	-	.07
	부의 수용 대 거부	.11	-	.11	.08	.03	.11
	모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06	.13	.18	.05	-	.05
	모의 수용 대 거부	.19***	-	.19	.23***	-	.23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	-.01	.05	.04	.12***	.05	.17
	불안정한 정서성	-.04	-	-.04	.00	-.15	-.15
	외향성	.35***	.04	.39	.14***	-	.14
	결혼만족도	.25***	-	.25	.30***	.02	.32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	부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09	-	-.09	-.02	-	-.02
	부의 수용 대 거부	-.07	-	-.07	-.23***	-	-.23
	모의 독립성조장 대 과잉보호	-.07	-.09	-.13	-.03	-.05	-.08
	모의 수용 대 거부	-.27***	-	-.27	-.10	-	-.10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	.07	-.07	.14	-.07	-.02	-.09
	불안정한 정서성	.45***	-	.45	.44***	.07	.51
	외향성	-.17***	-	-.17	-.02	-	-.02
	결혼만족도	-.08	-	-.08	-.14	-.22	-.36

\* < .05 \*\* < .01 \*\*\* < .001



〈그림 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각 변인과의 인과모형



〈그림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각 변인간의 인과모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인과모형을 재구성한 <그림 3>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에는 아동기 때 아버지로부터 수용되었던 경험은 외향성을 매개로,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불안정한 정서성은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기 경험 중 어머니로부터 과잉보호되었던 경험이 불안정한 정서성을 매개로,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본인의 결

혼만족도와 불안정한 정서성을 매개로 하여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안정한 정서성은 직접적 영향력과 함께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하여서도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변인들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1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26%를 설명하고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동기 경험의 경우, 어릴 때 부모로부터 독립성이 조장되고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하고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면 온정적 양육 행동은 많이 하는 반면 거부·권위주의적 양육 행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때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들(Belsky, 1984; Crowell & Feldman, 1988)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외향적인 인성이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적게 하는 반면, 불안정한 정서성이 높으면 온정적 양육행동은 적게 보이고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인성을 가진 부모들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온정적이고 민감한 행동을 보이는 반

면, 부정적인 인성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Grossman et al., 1988; Field, Sandberg, Garcia, Vega-Lahr, Goldstin & Guy, 1985; Bettes, 1988; 문희선, 1995)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의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고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적게 보인 반면,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보다는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었다. 이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관계도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Belsky & Isabella, 1985; Easterbrooks & Emde, 1990; Engfer, 1990)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기 경험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인성과 결혼만족도를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아동기 때 출생가족(families of origin)에서 경험한 대인관계 기술이나 기대, 정서, 행동양식을 자기가 새로 꾸린 가정으로 가져

와 배우자로서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Belsky & Vondra, 1993).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경험이 인성을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만을 나타내고 있는 선행연구(Belsky, 1984; Meyer, 1990; Belsky와 Isabella, 1985)와는 엇갈린 결과를 보이며, 아동기 경험은 양육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과 동시에 우울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Simons 등 (1993)의 연구결과를 더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발달사는 반드시 인성을 거쳐서 다른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 Belsky(1984)의 가족과정모델은 본 연구와 같은 실증적 검증을 토대로 다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양육행동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동기에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양육경험에서만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동기 때 자신의 아버지의 양육이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Belsky, 1984; 허선자, 1992)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어머니의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기 때 아버지로부터 거부되었던 경험에 의해서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서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은 과거 자기 어머니로부터 거부되었던 경험하고만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한 Cronkenberg(1987)의 연구와도 엇갈린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본 연구 결과에서는 아동기의 경험 중 자기 자신들과 반대 성(性)의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 중 아버지는 외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

던 반면, 어머니는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고,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는 아버지의 경우 외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어머니에게는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서 인성과 결혼만족도는 모두 중요한 요인이지만 인성은 아버지에게,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결혼만족도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선행연구(Belsky, Youngblade, Rovine, & Voling, 1991; Easterbrooks & Emde, 1990)와는 다른 결과인데,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인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한 본 연구에서는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인성과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증적인 연구(Cox, Owen, Lewis, & Henderson, 1989; Simons, Whitbeck, Conger, & Melby, 1990)에서 인성은 아버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 반면,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에게만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인성특성과 결혼만족도의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Grossman et al., 1988; Levy-Shiff & Israclashvili, 1988)에서 아버지에게는 인성이 결혼만족도보다 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해 가정 안에서 상대적으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버지는 자신만의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반면, 어머니는 자기 남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들은 문화적 특성상 자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내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부부관계와는 상관없이 자녀에게 온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었는데, 주로 30대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의해서 양육행동이 상당히 달라지므로

점점 더 부부관계가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문화선(1995).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과 자녀양육태도의 관계-Bowen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울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시빌 아이젠크, 이현수(1985). 아이젠크의 성격차원에 관한 연구-한국과 영국. *한국심리학회지*, 5(1), 51-66.
- Amato, P.R. (1991).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e recall of childhood family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11-1019.
- Amato, P.R. & Booth, A.(1994). Parental marital quality, parental divorce, and relations with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21-34.
- Belsky, J.(1981). Early human experience :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Isabella, R. A.(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to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342-349.
- Belsky, J & Pensky, E.(1990).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s :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R.A. Hinde & J. Steve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 Oxford, 193-217.
- Belsky, J., Youngblade, L., Rovine, M. & Voling, B.(1991). Patterns of marital change and paren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89-498.
- Belsky, J. & Vondra, J.(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Lawrence Erlbaum, 227-250.
- Benoit D., and Parker, K. C. H.(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6.
- Bettes, B. A. (1988).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ese: Temporal and intonational features. *Child Development*, 59, 1089-1096.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2 :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
- Cohn, D.A., Silver, D.H., Cowan, C.P., Cowan, P.A. & Person, J. (1992). Working models of childhood Attachment and Couple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 13(4), 432-449.

- Cox, M. J., Owen, M. T., Lewis, J.M., & Henderson, V. K. (1989). Marriage, adult adjustment, and early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0, 1015-1021.
- Cronkenberg, S. & McClusky (1986). Change in maternal behavior during the baby's first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57, 746-753.
- Crowell, J.A. & Feldman, S.S.(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8, 976-984.
- Eastbrooks, M.A. & Emde, R.N. (1990).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A. Hinde & J. Steve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 Oxford, 83-103.
- Engler, A.(1990). The interrelatedness of marriage and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In R.A.Hinde & J. Steve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 Oxford, 83-103.
- Eysenck, H.J.(1980). Personality, marital satisfaction, and divorce. *Psychological Report*, 47, 1235-1238.
- Field, T., Sandberg, D., Garcia, R., Vega-Lahr, N., Goldstin, S., & Guy, L.(1985). Pregnancy problems, postpartum depression, and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52-1156.
- Frank, S., Hoke, C., Jacobson, S., Justkowski, R., and Huyck, M. (1986).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arents' sense of confidence and control and self-versus child-focused grat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48-355.
- Grossman, F. K., Pollack, W. S., & Golding, E. (198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 *Development psychology*, 24(1), 82-91.
- Goodrich, W., Ryder, R., & Rausch, H. (1968). Patterns of newlywed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383-389. \*
- Levy-Shiff, R. & Israelshvili, R. (1988). Antecedents of fathering: Some further Expl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434-440.
- Lobdell, J., & Perlman, D.(1986).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loneliness: A study of college female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589-595.
- Luster, T. & Okagaki, L. (1993). Multiple influences on parenting :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Lawrence Erlbaum, 227-250.
- Meyer, H. J. (1990). Marital and mother-child relationships : developmental history, parent personality, and child difficultness. In R.A.Hinde & J. Steve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 Oxford, 83-103.
- Pagelow, M.(1981). Factors affecting women's decisions to leave violent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 2, 391-414.
- Simons, R. L., Whitbeck, L. B., Conger, R. D., and Melby, N.(1990). Husband and wif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parenting: A social learning and exchange model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375-392.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D., and Chao, W.(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 Sroufe, L. A., Jacobvitz, D., Mangelsdorf, S., DeAngelo, E., and Ward, M. J. (1985).



-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between mother and their preschool children : a relationship systems approach. *Child Development*, 50, 317-325.
- Snyder,D.(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Rowe, D. C.(1994). *The Limit of Family Influence*. NY: Guilford Press.